

증시 '검은 목요일'... 코스피 사상 최대 폭락

빛내서 '상투 잡은' 개미들 망연자실

2,000시대 환상 쫓아 뛰어 들었는데...

대폭락 장세에 '원금 손실' 피해 속출

국내 증시사상 하루 하락폭으로는 최대치를 기록한 16일 오후 3시 광주 시내 D증권사 객장은 망연자실한 개미들의 혼소리로 가득찼다.

자영업자인 최모(42)씨는 하루종일 주가 전광판에서 눈을 떼지 못하다 자신이 보유중인 S증권 주식이 하한가로 마감하자 맥없이 주저앉았다. 울며 급등하는 주가를 지켜보다 빛을 내 증권주에 투자한 것이 화근이었다.

최씨는 거래 증권사에서 신용융자로 2천만원을 빌려 지난달 24일 M&A 재료가 있는 S증권 주식을 주당 6천500원에 샀지만 현재 3천205원으로 3주만에 반토막이 났다.

주가 2,000시대의 장밋빛 환상을 쫓아 뒤늦게 주식시장에 뛰어든 개미(소액의 개인투자자)들이 이달들어 주가가 폭락하자 패닉상태에 빠졌다. 특히 이날은 코스피지수가 사상 처음

으로 세자리수 낙폭을 기록하고 코스닥지수는 10% 넘게 폭락하면서 개미들이 낮을 잃다시피 했다.

최근 주가폭락은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로 인한 신용경색 우려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동반 하락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유독 국내증시의 하락폭이 커 개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전세계로 확산된 이번 주 들어 미국·유럽·중국·일본 등 글로벌 증시는 평균 3% 안팎의 하락세를 보인 반면 국내 코스피지수는 7.1%, 코스닥지수는 12.8%나 폭락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같은 폭락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최씨의 경우 90일 만기대출로 6월 말 신용융자를 받은 상태라 9월말이



증권시장이 폭락한 16일 광주시내 모 증권사 객장을 찾은 한 고객이 온통 파란색으로 변한 시황판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면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주가가 반토막이 나 속을 태우고 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신용거래는 상환기간(90일~150일)에 따라 연 7~9.5%대의 이자를 내야한다. 상환일을 넘기는 경우 반대매매로 주식이 강제로 팔리고 연체이자율도 많게는 17%까지 부담해야 한다.

회사원 정모(40)씨는 은행에서 마이너스 대출로 1천500만원을 받아 지

난 13일 S중공업 주식을 샀다가 거래일 기준으로 이틀만에 263만원(17.5%)이나 손실을 입었다. 올들어 조정기간(90일~150일)에 따라 연 7~9.5%대의 이자를 내야한다. 상환일을 넘기는 경우 반대매매로 주식이 강제로 팔리고 연체이자율도 많게는 17%까지 부담해야 한다.

개미들 사이에는 글로벌 증시보다 과도한 국내증시의 폭락이 한국은행의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한 콜금리 인상도 작용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

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광주시내 한 증권사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라는 호재를 이용해 개최 발표 다음날 한은이 콜금리를 인상한데다 콜금리 인상 다음날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영국으로 확산되는 등 국제 금융시장 동향을 내다보지 못한 점이 과도한 주가하락을

낳고 있다는 고객들의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정필수기자 bungy@

민주신당 대선후보 합종연횡?

'1인 2후보 선택' 컷오프 경선방식 확정

대통합민주신당 '컷오프'(예비경선)가 다음달 초로 다가오면서 주자간 합종연횡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권자 1명당 2인의 후보를 선택하는 여론조사 방식이다 보니 상위권 주자군에서는 보다 높은 순위를 얻기 위해, 중·하위권의 경우 컷트라인을 통과하기 위해 각 진영별로 자연스러운 '짜집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것.

현재 국민경선관리위원회가 압축 규모를 6~7명 선으로 검토하고 있어 컷오프 참여가 예상되는 후보군 9명 안팎 가운데 2~3명은 예선에서 탈락하게 된다.

범여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측은 일단 '1위 통과'에 문제 없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타후보 지지자들도 본선 경쟁력 면에서 손 전 지사를 동시에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서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나머지 주자군 사이에서 본격적인 '반(反)손' 연대가 형성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기류도 엿보인다.

이에 따라 손 전 지사측은 '1인 2후보' 선택 방식의 여파로 1위를

뺏기는 '불상사'에 대비, 중·하위권 가운데 상대적으로 손 전 지사에 대한 반감이 적은 후보와 물밑에서 연대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정 전 의장측은 이번 여론조사가 비(非) 한나라당 성향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는 점을 들어 범여권의 전통적 지지층 결집을 주요 포인트로 삼았다.

정 전 의장의 경우 영남 출신으로 수도권에 지역구를 갖고 있던 민주당 추미애 전 의원 등과의 '전략적 제휴'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진노(親盧) 주자 지지자들간 '품앗이'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도 관심거리다. '친노 3인방'인 이해찬·한명숙·전 총리와 유시민의 원의 경우 지지층이 상당부분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후보단일화 원칙에 합의한 '이해찬·한명숙' 조합 쪽으로 친노 진영의 선택이 움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정치적 사제 관계로 조직면에서 우세한 이해찬·유시민 의원간 연대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더 많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투표 D-2

李-朴 막판 사투 격화

심각한 후유증 예상... 당 분열 가능성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불과 사흘 앞두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사투가 더욱 격화되고 있다.

박 후보 측은 도곡동 땅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전 시장의 후보 사퇴를 거듭 주장하고 있고 이에 맞서 이 후보 측은 '패배를 앞둔 박 후보의 경선 쿠데타 음모'를 종대 결심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나라당 '빅 2'의 경쟁전이 과열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며 경선 이후 한나라당의 분열 가능성마저 제기하는 등 한나라당 경선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는 '도곡동 땅' 처명 재산 의혹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이 전 시장의 망형 상은씨의 도곡동 땅 지분이 제3자의 처명재산으로

보인다는 지난 13일 검찰수사 결과 발표를 두고 박 전 대표 측은 "이 전 시장 땅이 확실하다"며 후보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고, 이 전 시장 측은 "경선을 하지 말자는 것이며 종대 결단을 할 수도 있다"고 맞섰다.

이날 박 전 대표 캠프 김재원 대변인은 "이 후보는 본선 완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계속해서 한나라당 후보가 되었다고 고집하면 당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면서 후보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맞서 이 전 시장 측 박희태·김덕룡 공동선대위원장은 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경선이 사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퇴를 운운하는데 경선을 치르지 않겠다는 것인 지 이해할 수 없다"며 "세간에는 사퇴 주장이 다음의 종대한 조치를 취하려는 사전 포석이라는 의혹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한나라당 '빅 2'가 경선을 사흘 앞두고 정면 충돌에 따라 상당한 경선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다.

우선, 양측의 감정의 골이 회복할 수 없는 상태까지 패했다는 점에서 패자가 승자에 혈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패자 측을 지지했던 한나라당 의원 및 원외 지구당 위원장의 탈당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분열의 길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경선 후유증이 예상되자 이 전 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캠프에 소속된 한나라당 원로들과 중립 성향 원로 27명은 이날 여의도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과열 경선을 자제하고, 결과에 무조건 승복기로 합의하는 등 경선 후유증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사실상 사생결단 분위기에 서 진행되고 있는 경선 양상을 고려할 때 이러한 합의가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당 박관용 경선관리위원장과 박근혜, 이명박 캠프 원로들이 6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회동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뉴스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의장 김진홍 목사

이명박 후보에 2억8천만원 수수 의혹

중립성 비대위 회원들 주장

뉴라이트 전국연합 일부 회원들은 16일 이 단체의 상임의장인 김진홍 목사가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2억8천만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뉴라이트 청년연합 장재원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된 뉴라이트 전국연합 중립성 회복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뉴라이트 회원인 H대 Y교수는 명박사랑 핵심간부의 말을 인용해 '김진홍 목사는 이명박 후보로부터 2억8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들은 바 있다'고 증언했다"며 "특정후보 승리를

위해 노골적으로 편파운동을 해 온 김 목사는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 광화문 뉴라이트 전국연합 사무실로 몰려가 직원들을 쫓아내고 사무실을 점거했다.

이에 대해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즉각 논평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주도한 장재원씨는 지난 6월 '대운하 보고서 유출 사건'과 연루돼 언론에 이름 오르내리던 인사"라며 "이러한 사태는 불리한 전세를 어떻게든 만회하려는 박근혜 캠프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 Entertainment and SECOR & COMPANY by arrangement with The Really Useful Group. present

세계 최장기 공연에 빛나는 감동의 신화
브로드웨이 오리지널팀 뮤지컬 킷츠 내한공연!

CATS

2007. 9. 7 (금) ~ 16 (일) /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특급멤버! 최정호 씨가 캐스팅!

주최: 광주일보, KCTV,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후원: 광주광역시, KCTV, 광주문화재단
공연문의: 062) 220-0541, 1588-0766

공연장: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광역시 남구 남대문로 100-1)
입장권: 10,000원, 8,000원, 5,000원

공연: 뉴라이팅, 2007년 9월 7일 공연 프로그램 변경됨